

무주 발전 · 군민 행복 실현 가속화

군, 2026년도 국가예산 주요 신규 사업 대거 반영

2026년도에는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무주군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총사업비 187억 원),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총사업비 452억 원),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조성(총사업비 398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 총사업비 43억 원) 등 주요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덕유산국립공원의 생태·치유 관광 거점이 될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에 국비 1억 2천만 원이 확보되면서 구천동 관광특구 확

성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국비 2억 원)'는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가 태권도 교육·교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으로, 태권도원과 연계해 'K-컬처 무주 태권도'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국비 6억 원)'는 장기보호 외국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대안 시설로, 기존 구급식 보호 모델을 개선하는 국가정책 실현 기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2단계 매립지의 용량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해·생물 쓰레기 처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것

로, 관련 국비가 확보(5억 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를 처리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와 함께 '무주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총사업비 100억 원)'이 중앙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5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6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무주 추진에 착수할 계획으로, 덕유산과 구천동 33경의 풍부한 자연·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탐방로 조성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무주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들이 만큼 무주발전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와 관계 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거머쥔 기회가 무주발전과 주민 행복으로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성 기자

지역 산업기반 강화 · 친환경 인프라 구축 '탄력'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총사업비 310억원 확보

진안군이 추진 중인 홍삼한방 농공단지와 연장농공단지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1단계)이 2026년도 국가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 예산 확정으로 총사업비 310억 원(국비 258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산업기반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별로는 홍삼한방 농공단지 170억원(국비 132억원), 연장농공단지 140억원(국비 126억원)이 배정됐다.

두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그동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공공폐수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적합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또한 섬진강과 금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청정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23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환경청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2026~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2029년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를 계기로 농공단지 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 활동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 추진을 병행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마련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산업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장수군은 지난 4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2025년 장수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4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2025년 장수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장수군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 참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운영된 읍·면 대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대에서는 기타, 난타, 체조 등 각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차례로 선보였으며, 지역별 특색이 담긴 공연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면서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연대감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해, 주민자치 기반 확립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 및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1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고 등급

장수군, 투자계획 평가서 도내 유일 '우수지역' 선정... 120억원 확보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1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장수군과 같은 우수 등급 지역은 총 8곳이다. 특히 장수군은 이번 '우수지역' 선정은 2024년에 이어 두 번째 최고 등급 선정으로 청년 정착지원과 농촌형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 전 분야의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안정적인 인구정책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차등 지원한다. 장수군 등 최고 등급(우수)지역은 지자체별로 120억 원을 지원하며 S등급 지역은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은 72억원을 지원한다.

장수군은 지난 8월 1차 평가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19개 시·군에 선정된 뒤 최종 대면 평가에서 장수군의 인구감소 현황과 2026년 기금사업 투자전략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 장수군은 내년 투자사업 방향을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두고 △K-사모니 트레일시티 조성 △레드푸드 팩토리 조성사업 △맞춤형 주택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번 성과는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국회 차원의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탬 점도 크게 작용했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를 확보해 인구감소 대응에 힘을 더할 수 있게 됐다"며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이번에 추가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귀농 · 귀촌 한마당 '우리 함께 진안에서' 열려

진안군은 지난 5일 산악초타운에서 2025년 귀농 · 귀촌 한마당 '우리 함께 진안에서'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귀농 · 귀촌 공동체 활동성과를 공유했다. 귀농귀촌 한마당은 귀농 ·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한 해 동안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지역 내 상호 이해와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귀농 · 귀촌 동아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8개 동아리의 활동 발표와 전시, 귀농 · 귀촌 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및 청년 캠프 활동 보고,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활동 발표로는 △세이빙 라이브스(SAVING LIVES) △그린샷 △다시 봄 △상전향기나눔 △오천공사람연구회 △진무장자원봉사단 △진안정원학교 △원구름타구클럽의 8개소 동아리가 올해 활동 및 결과를 공유했으며, 동아리 활동의 지역 기여도와 참여도를 평가해 우수 동아리 3개 팀을 시상했다.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농어촌기본소득 포럼 개최

진안군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군청 3층 강당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절벽 농촌의 대안이 될까'란 주제로 2025 진안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농어촌 기본소득 포럼을 개최한다. 기조 강연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경승 부이사장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이해'를 주제로 해 시범 사업의 배경과 기본 소득의 이해를 돕는 강의로 문을 연다. 첫 번째 발표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하며, 두 번째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이 '도에서 바라보는 기본소득 정책방향'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발표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청양군의 기본소득 모델'을 직접 공모 신청에 참여하여 준비했던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이 채울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마이산도립공원 동절기 암마이봉 등산로 통제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가 지난 11월 21일부터 동절기 입산 통제에 들어갔다. 암마이봉은 지형 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결빙이 잦아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겨울철 등산로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동절기 통제 구간은 천왕문에서 암마이봉 정상(0.6km) 구간과 봉두봉에서 암마이봉(0.9km) 구간으로, 천왕문과 봉두봉 방면 2개 출입구가 전면 통제되며, 내년 3월 중순경 개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입산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동절기 다른 탐방로를 이용할 시에도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